

## 믿음인가? 느낌인가? (1)

이 정업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오늘날 우리는 느낌과 감정을 따라 사는 시대가 되었다. 짧은 인생인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며 느낌 가는 대로 살자는 가치가 팽배하다. 그런데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신앙생활이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많이 좌우되고 있다. 물론 감정도 중요하고, 느낌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경은 결단코 우리가 어떠한 느낌이나 감정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이 우선이 되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이 문제이다.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원수를 바라볼 때 어떠한가? 죽이고 싶도록 미울 것이다. 그런 느낌과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 느낌과 감정 때문에 “내 안에 그 원수를 사랑하고픈 마음과 감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결단코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고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잘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마 5:46-47)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남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예수 믿기 전의 옛날의 나보다 더 하는 것이 있는 자들이다. 아직 원수를 사랑하고픈 느낌이나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만약 기도할 마음도 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원수인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고 말씀하신다. 그것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된 모습이라는 것이다. 느낌과 감정대로 사는 것은 불신자들도 살아가는 방식이요 태도이다. 그러나 느낌과 감정은 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 아직 그런 느낌과 하고픈 마음은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순종하고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 나도 주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나를 만드시겠다고 목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느낌이 안 좋다고, 감정이 안 생긴다고 신앙생활에 뒤처지고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느낌에 좌우되지 말라. 인간관계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도무지 순종하거나 공경하고픈 마음이 생기지 않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런 마음이 점차 생기게 되는 것이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복종하기를 시작하면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신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런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것이 가능토록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내포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느낌과 감정을 주신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의 비밀이다.

사람들은 모른다. 느낌이나 감정이 나와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것 없이 사랑하는 것은 가식이고 거짓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과 거꾸로 산다. 그들보다 더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느낌과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먼저 믿는다. 느낌과 감정이 확실히 생기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것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이다. 우리의 삶은 무엇에 의해 출발하며 좌우되고 있는가? 믿음(faith)인가? 느낌(feeling)인가?

